

상식이 되는 비상식의 조건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접근금지 구역으로 들어가 찍은 사드 레이더 안테나

반성하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려 한다. 4년 전, 나는 일본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된 적이 있다. 조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다. 대신 덕분에 그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진실을 봤다. 사드 기지 안에서.

당시는 국내에서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던 때였다. 그때 비교 대상으로 언론에 수차례 언급된 곳이 있다. 2014년 12월부터 일본에서 가동 중이던 사드 레이더였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일본 사드 기지를 가봤다”면서 잇따라 사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 매체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기지 주변에서 30분만 얘기하면 토할 것 같다’는 주민의 말을 인용했다.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도 실렸다. 심지어 ‘소음 지옥’이란 표현을 쓴 곳도 있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다. 사드 기지 근처에서 ‘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단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었다. 또 사드의 부정적 측면은 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부각됐다. 한 종편은 사드 기지와 꽤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에서 굉음에 가까운 소리가 들렸다. 알

고 보니 이 영상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편집한 뒤 제공한 것이었다. 코끼리 다리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코끼리를 보러 가기로 했다. 2016년 7월16일, 사드 기지가 있는 일본 교토 코가미사키(経ヶ岬) 미군통신소에 도착했다. 이곳은 교토부 철도선의 종점인 미야즈역(宮津駅)에서 버스로 1시간 더 들어가야 도달할 수 있다. 해남 땅끝마을의 절벽에 다다른 기분일까.

버스로 가는 내내 해안가와 논밭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절경이 이런 모습일까 싶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사드가 그렇게 좋으면 근처에서 살든가"라며 조롱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비꼬려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만큼 아름다웠다.

경치에 넋을 놓고 있을 때쯤 사드 기지에 도착했다. 건너편에 골프공 모양의 거대한 기기가 눈에 들어왔다. 사드 소개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안테나다. 먼발치에서 '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기사에서 읽은 대로다. 다만 주변의 새 지저귀고 매미 울음에 묻힐 정도로 미미

했다. 때로 지나다니는 자동차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다.

그때 내가 서 있던 버스 정류장은 소데시(袖志) 마을의 입구 근처에 있었다. 근방의 오와(尾和) 마을과 함께 사드 기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진 주민 거주지다. 그곳에서 영상을 찍고 소음을 측정하기만 했어도 기사의 열개를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취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드의 소음·전자파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심을 부렸고, 결국 사달이 났다.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에 다가갔다.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붙어

일본 교토 코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 주변에 붙어 있는 접근금지 경고문



접근금지 구역 밖에서 찍은 사드 레이더 기지 전경

있었다. “주일미군 군사구역. 무단 침입은 일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이는 영어와 일본어로 빨강색에 적혀 있었다. 휴대폰 앱으로 소음을 재고 영상을 찍었다.

당시 기지 안쪽에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용 차량이 활짝 열린 기지 정문으로 계속 드나들었다. 사드 레이더 최근방에서 소음을 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의심 없이 정문으로 들어갔다. 레이더의 밑동까지 점차 눈에 들어왔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홀드 온(Hold on·기다려라!)” 소총을 들고 레이더를 지키고 있던 미군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기지 안쪽의 누군가가

심각한 얼굴로 무전을 쳤다. 무슨 일이라고 재차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막사에 있던 미군 한 명이 얼굴만 빼꼼히 내민 채 말했다. “당신은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왔다.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 한여름이라 무척 땀이 많이 났는데, 또 한 줄기의 식은땀이 흘렀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어디선가 ‘일본 군사기지 무단 침입은 중범죄’란 글을 읽었던 것 같기도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마을의 정적을 뚫고 경찰차가 줄지어 도착했다. ‘경찰 한두 명이 조사하고 말겠지’란 기대는 빗나갔다. 경찰관 10여 명이 나를 둘러쌌다. 이름과 직업, 방문 경위만 최소 5번 이상 질문받았던 것 같다. “취재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며 침착한 척했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안 들리길 바라면서.

현장에서 최고위직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접근금지 경고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미군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돌아와서 나를 몰아세웠다. 그때 들은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침에 당신이 기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걸 미군이 봤다고 증언했다. 당신 배운 사람 아닌가. 기자라면서 왜 거짓말을 하나?”

그때부터 참 드문 경험을 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부터 미군이 제지할 때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재현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일종의 현장 검증이 아니었나 싶다. 솔직하게 모든 동선을 다 털어놓았다. 내가 가는 곳마다 경찰 한 명이 카메라로 촬영하며 계속 따라다녔다.

검증이 끝나자 갖고 있던 물품을 모조리 압수당했다. 지갑과 여권은 물론 현장의 사진·영상을 담은 휴대폰도 빼졌다. 경찰차에 탔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한단다. 번뜩 위기감이 엄

레이더 기지가 있는 교토 미야즈(宮津)시의 한 숙소에서 내려다본 마을 모습



레이더 기지 내부에서 순찰 중인 미군 관계자

습했다. ‘압수품을 못 돌려받으면 어찌지?’

피가 떠올랐다. 옆자리의 경찰관에게 “회사에 메시지만 보낼 테니 잠시 폰을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 서글한 인상의 경찰관은 의심 없이 폰을 내줬다. 곧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했다.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한 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경찰관은 이상한 낱새를 했는지 다시 폰을 가져갔다. 몇 분 뒤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을 터다.

교토 교탄고시(京丹後市) 경찰서에 도착했다. 일 때문에 들렀는데 경찰서에 현행범 신분으로 앉아 있게 될 줄이야. 그것도 외국에서. 조사관은 “군사구역 안에서 찍은 촬영물은 절대 반출이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지목하는 사진과 영상은 모두 지워라”라고 말했다. 불응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단다. 그는 직접 ‘indictment(기소)’라고 써서 내밀기도 했다. 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보는 자리에서 지웠다. 그 순간에도 클라우드 업로드는 계속되고 있었다. 경찰은 삭제된 걸 확인하자 소지품을 돌려줬다.

사드 기지에 도착한 게 이른 아침이었는데, 경찰서를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곧바로 클라우드 서버를 확인했다. 사진과 영상들이 가지런히 나열돼 있었다. 가슴 안쪽부터 뻗혀 있던 숨이 터져 나왔다.

그 다음날에도 기지를 방문했다. 소음과 전자파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 9명과 대화를 나눴고, 답변은 대동소이했다. 소음·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것. 증거를 남기고자 대화는 모두 녹음해줬다. 앞서 만난 교토부청의 담당 공무원 역시 “소음이나 전자파로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했다. 관련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그는 자료를 찾아가며 성실하게 응대해줬다.

2016년 7월 16일 오전 10시경 사드 레이더에 근접해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소음 수치.



당시 국내 일각에선 “사드의 전자파로 주변 농작물이 피해 입을 것”이란 얘기가 떠돌기도 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선 명물인 참외가 ‘사드 참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교토 사드 기지 주변도 농사가 활발한 지역이다. 유명한 농산물로는 쌀과 배, 수박 등이 있다. 여기서 자란 농작물이 안전할지 아닐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단 “피해 없다”는 주민들과 공무원의 얘기를 직접 들은 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수확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만큼 기사를 쓸 때 집중력을 발휘했던 적도 없는 것 같다. 사진과 영상도 같이 올렸다. 당시 나는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비영리매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사의 전파력에 대해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도 기사가 올라간 뒤 사드의 유해성 논란은 점차 가라앉았던 걸로 기억한다. 몇 군데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했지만 거절했다.

당시 몸담았던 매체는 폐간됐다. 지금은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사드 기지 방문 경험은 술자리의 안줏거리로 자주 써먹었다. 구전(口傳) 일화로만 남기



레이더 기지 부근의 오와 마을

기 아까워 언젠가 기록해 뒤야겠다는 생각만 해왔다. 이제서야 글을 쓴다.

내 경험을 들은 한 친구는 나를 ‘포라이’라고 했다.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포라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다. 사전적으로는 속된 표현이다. 그러나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열정을 단적으로 묘사해준 것 같아 기뻐다.

언론계 곳곳에는 지금도 진실을 찾아 나서는 포라이가 많다고 생각한다. 절대 비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들이 있기에 갈등은

붕합되고, 사회는 한층 진일보한다고 믿는다. 비상식적인 열정이 때로 상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단 포라이 기질을 발휘하는 건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다. 나는 의도야 어떻든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 꼭 사드 기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치기 어린 시절을 고백하는 반성문이다. 보잘 것 없는 무용담이기 이전에 참회다. 의욕이 앞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다시 돌이켜 본다. 🙏